



리빙 정리의 계절... 효과적인 의류 관리



“옷 관리의 필수 조건 올바른 세탁과 보관”

제품별 품질표시 참고해 세탁·관리 중성세제·전용세제 등 활용법 달라 보관 방법 달리해 기능성·형태 유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모든 계절이 하루에 펼쳐지는 '춘추날씨시대'의 요즘이다. 두꺼운 겨울옷은 정리가 필요하고 옷장 안에 있던 가벼운 옷들은 단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류는 옷 안쪽에 붙어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참고해 의류별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세탁하고 관리해야 한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은 '옷 정리의 날'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운 제품은 세탁 후 두드리고 눕혀서 보관-겨울철 대표적인 의류는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중성세제로 사용하는 다운제품이다. 다운제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30℃ 정도의 미온수에서 손빨래하는 것이 좋다. 때가 많이 타는 목과 손목 부분은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가볍게 문지른다.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꼭 세탁망을 사용하고 세탁 강도를 약하게 해야 한다. 세탁 후에는 옷걸이에 걸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고, 내부의 충전제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긴 막대기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두드려 부피감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 다운 의류를 보관할 때는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보다는 잘 접어서 옷장 서랍과 같은 곳에 넣어 보관해야 충전제가 아래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니트류는 옷걸이에 걸어도지 마세요”=니트는 습기·온도에 쉽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옷을 입을 후 바로 옷걸이에 걸면 아래쪽으로 늘어나고 어깨 부분에 옷걸이 모양이 남기도 한다. 니트류를 입을 후에는 체온과 습기가 제거될 때까지 넣어두었다가 가볍게 털어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풀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풀 제거기를 이용하거나 테이프를 이용해 보풀을 들어 올려 가장 아랫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것이 좋다. 손으로 잡아당겨 떼내면 뒷부분만 잘리고 남아 있는 부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 울이 섞인 니트는 보관 시 해충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방충제를 함께 넣어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능성 소재 관리 방법=뛰어난 기능성으로 아웃도어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착용하는 '고어텍스' 제품이 늘고 있다. 고어텍스 제품은 세탁하면 기능성이 저하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소재 자체의 내구성이 강해 물세탁이 가능하고 관리도 어렵지 않다. 고어텍스 제품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지퍼와 벨크로, 단추를 모두 잠그고 40℃의 미온수에 담가서 이물질질을 불린 후 아웃도어 전용세제나 울 세제를 넣어 세탁한다. 손세탁과 세탁기 이용이 모두 가능하며 손세탁을 할 경우에는 강하게 비비지 않고 가볍게 조물조물 세탁해 세제가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준다.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탁망에 넣어 표준코스로 단독 세탁하는 것이 좋다. 표백제나 섬유유연제는 투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세탁 후에는 옷걸이에 걸어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건조하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수제를 뿌려 주면 좋다. 발수 처리를 통해 눈과 비에도 강한 고어텍스 소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발수제는 의류용과 신발용이 구분돼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발수제를 뿌린 후에는 건조기를 이용하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약한 열로 말리면 코팅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염물질 제거 팁

▷땀으로 인한 변색=세탁 전 우유에 담그거나 쌀뜨물에 헹궈주면 표백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꿀 껍질이나 달걀 껍데기를 넣고 삶으면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과일로 인한 변색=과즙이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찬물로 씻어내야 하고 물 두 컵 분량에 식초 한 방울 정도를 넣어 10분 정도 담가 둔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건에 식초를 묻혀 가볍게 두드려둔 뒤 이내내면 제거가 가능하다.

▷화장품으로 인한 변색=세탁 전 소금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실랑을 넣어 삶으면 얼룩을 지울 수 있다.

▷커피로 인한 변색=우유가 든 커피인 경우에는 미온수에 담근 후 시너나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를 넣고 세탁한다. 실랑이 든 커피의 경우에는 글리세린을 소량 넣은 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주면 된다.

▷스웨이드 얼룩=스웨이드 제품은 고무지우개를 이용하거나 우유를 묻힌 거즈를 사용해 닦아내면 좋다.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제거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觀

싫은 나 좋은 나 이상한 나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의 서문의 마지막에는 '보세요 나의 우울을'이라고 쓰여 있다. 심지어 그 문장 전에는 '봐도 좋고 안 보면 더 좋다'고 쓰여 있어서 보면 안 좋다는 그 우울을 굳이 확인하고 싶은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스럽게도 작가는 자신의 불행을 전하지 않았다. 선불리 희망을 말하진 않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글의 그 뒤송송한 어떤 것들이 나는 좋았다. 제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거의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을까. 나는 내가 싫지만 좋기도 하고 이려고 있는 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영화 '레이디 버드'의 크리스틴.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정말 가장 어렵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의 그 한 사람은 자신일 것이다. 내가 싫은 이유는 늘 분명하고 좋은 이유는 느닷없고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쉽게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다. 어떤 영화들은 스스로의 속내를 더듬는 주인공을 통해 보는 이들의 감정에게 말을 건다. 나도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다고. 장르적으로 구분하면 그런 작품들을 성장 영화라 부를 것이다.

물론 성장 영화는 비단 유년애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덜 자란, 여전히 자라고 있는 어른의 성장 영화는 묘하게 마음을 아리게 만든다. 대개의 성장 영화들은 자신이 누구 인지를 발견하는 그 아찔한 찰나의 앞과 뒤를 사려 깊게 살핀다. 물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시하는, 좋은 성장 영화의 미덕을 갖춘 영화들은 어른스럽다는 말이 어울리는 훌륭한 꼴로 완성된다.

근사한 배우 시얼샤 로닌의 대 표작 '레이디 버드'가 그런 성장 영화다.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프란시스 하'의 주연 배우이자 '작은 아씨들'의 그레타 거윅 감독을 맡은 영화 '레이디 버드'는 관객들에게 싫고 이상한 자신의 삶을 좋아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가득한 영화이기도 하다. '레이디 버드'는 스스로에게 '레이디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10대 여성 크리스틴의 성장통, 특히 엄마

와의 관계가 주가 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뼈 때리는 대사는 여전히 유효한데 "난 네가 언제나 가능한 최고의 모습이길 바라"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이게 내 최고의 모습이면?"이라고 답하는 크리스틴 '레이디 버드' 맥퍼슨의 순간은 오묘하고 쟁쟁하다. 그래 이르면 어쩔 건데! 최고가 뭔데!

나는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10대 예서와 보라 생각을 했다. 임시라는 지옥에서 불을 뿜으며 발버둥 치던 그 친구들이 만약 일등이라는 타이틀 대신 스스로에게 다른 이름을 호명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떨어지지 않고 날아 올랐을까. 이미 총명한 드라마의 캐릭터들에게 지금도 애잔함을 느끼는 건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의 10대들이 대부분 예서와 보라의 모습 이어서가 아닐까. 나는 내가 10대

를 성장 영화는 비단 유년애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덜 자란, 여전히 자라고 있는 어른의 성장 영화는 묘하게 마음을 아리게 만든다. 대개의 성장 영화들은 자신이 누구 인지를 발견하는 그 아찔한 찰나의 앞과 뒤를 사려 깊게 살핀다. 물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시하는, 좋은 성장 영화의 미덕을 갖춘 영화들은 어른스럽다는 말이 어울리는 훌륭한 꼴로 완성된다.

근사한 배우 시얼샤 로닌의 대 표작 '레이디 버드'가 그런 성장 영화다.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프란시스 하'의 주연 배우이자 '작은 아씨들'의 그레타 거윅 감독을 맡은 영화 '레이디 버드'는 관객들에게 싫고 이상한 자신의 삶을 좋아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가득한 영화이기도 하다. '레이디 버드'는 스스로에게 '레이디 버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10대 여성 크리스틴의 성장통, 특히 엄마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승진 축하 CONGRATULATIONS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양영진 (성주공 31세)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봉해

취임 축하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장 고두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고씨 의남공 종친회 일동

수축상 축하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오영수 제10회 수산인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읍면동위원장진목회 회장 안영백 외 회원일동

수축훈 축하 CONGRATULATIONS 절탐산업훈장 김미자 (직장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운영위원) 절탐산업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회장 오경석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회장 나성순 새마을운동서귀포시협의회 회장 백성익 새마을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 회장 강금순